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철저히 지켜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 및 건설현장 점검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7월 3일(목)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현장점검

- 일시 : 2025. 7. 3.(목) 10:00~15:30
- 장소 : 주식회사 비엘푸드(인천 남동구 소재), DL이앤씨(인천 연수구 소재)
- 참석 : (공단) 김현중 이사장, 산업보건실장 등
(주식회사 비엘푸드) 대표이사, 담당부장 등
(DL이앤씨) CSO, 안전팀장 등

김현중 이사장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조선업 및 물류·도소매·시설관리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폭염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관장이 매월 2회 이상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중 이사장은 “우리나라 여름은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온열질환의 발생 위험이 크다며, 무더운 여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공단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	책임자	부 장	문현곤 (052-703-0147)
		담당자	차 장	이정미 (052-703-0787)



일터는 **안전**하게, 일상은 **청렴**하게